



세계가 하나... 월드컵에 열광하다

10일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독일 각 경기장마다 전세계 축구팬들이 몰려들고 있다. 페이스 페인팅 등 온갖 화려한 치장으로 자국 선수들을 응원하는 각국 팬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잉글랜드, 스웨덴, 한국, 독일 축구팬. /연합뉴스

# 토고전 D-1... '스리백' 극적 대반전?

## 아드보 '스리백-포백 최후의 선택'

### 안정성에 무게... '박지성 효과' 극대화 이천수-조재진-박지성 스리톱 출격 예상

2006 독일월드컵축구에서 한국의 운명을 좌우할 토고와 결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아드보카트는 13일 오후 10시 (이하 한국시간) 프랑크푸르트 월드컵경기장(코메르츠방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지난했던 8개월여 실험을 마무리한다.

덕 아드보카트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마지막까지 전략의 큰 틀을 수면 위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표팀의 중동 전지훈련

기간이던 지난 1월21일 그리스전에서 처음 채택했던 포백(4-back) 시스템을 13경기 연속 사용해오다 결전의 순간을 앞두고 '극적인 대반전'을 시도하려는 의도도 읽히고 있다.

최근 전술훈련에서 나타난 감독의 선택은 꾸준히 시험해 본 포백보다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스리백(3-back) 쪽으로 기울어 있는 느낌이다.

핵심은 '아드보카트의 심장'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다.

10일 레버쿠젠 '바이 아레나'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박지성은 오른쪽



10일 오후(한국시간) 레버쿠젠 바이 아레나에서 열린 공개훈련에서 설기현이 김영철과 공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이드로 위치를 바꿔 왼쪽 이천수(울산), 중앙 원톱 조재진(시미즈)과 짝을 이뤘다.

일단 스리톱(3-top) 라인에 단 한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이천수-조재진-박지성이 선발로 나서는 듯한 누앙상을 풍겼다. 중앙 미드필더진에는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김남일(수원) 조합보다 이을용-이호(울산) 듀오가 더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좌우 측면 날개형 미드필더는 이영표와 송종국 외에 다시 생각할 대안이 없어 보인다.

중앙 수비진은 스리백일 경우 한 명이 더 필요하다. 기존의 중앙 왼쪽

김진규(이와타), 오른쪽 최진철(전북) 사이에 들어올 최후 저지선으로는 멀티 활용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안정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김영철(성남)이 2002년의 홍명보 역할을 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아드보카트 감독이 기존의 전략대로 포백을 고수한다면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박지성 시프트'는 '없던 일'이 돼 박지성은 원래 자리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격한다. 이 때 스리톱에는 고민이 있다. 왼쪽 박주영(FC서울), 중앙 조재진, 오른쪽 이천수가 유력하지만 순수하게 기존 포워드 요원으로만

공격진을 구성할 때는 변수가 더 많다. 설기현(울버햄프턴)을 좌우 어느 쪽에서 활용하느냐가 포인트다.

포백 라인의 변함이 없다. 좌영표-우종국은 스리백에서는 측면 날개형 미드필더이지만 포백으로 환원하면 양쪽 사이드백이 된다. 중앙에선 김진규와 최진철이 그대로 나선다.

물론 아드보카트 감독이 선발 포백-후반 중반 이후 스리백으로 경기 중 임의변경을 시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모든 것은 당일 결정될 수도 있다. 태극전사들의 컨디션에 따라 순간적인 전술 변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태극전사 20호 골 주인공은?

### 공격 주도 조재진·이천수 가능성

한국 축구대표팀 역대 월드컵 20호 골의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태극전사들의 조별리그 첫 경기를 앞두고 팬들의 관심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보여줬던 '4강 투혼'의 신화가 독일에서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누가 조별리그 첫 상대인 토고의 골문을 활짝 열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난 1954년 스위스 월드컵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까지 총 6차례 월드컵에 출전해 모두 19골을 터트렸다. 이번 대회에서 첫 골이 터지면 마침내 월드컵 통산 20호 골 고지에 오르는 것이다.



조재진 이천수

독일 도착 이후 훈련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스리톱 공격라인을 이끌 가능성이 높아진 이천수(울산), 조재진(시미즈),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주영(서울), 안정환(위스부르크) 등 공격수 6명이 일단 그 영광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 누가 토고전에서 아드보카

트 감독의 선택을 받고 스리톱 라인을 이루게 될지에 따라 첫 골 주인공 윤곽이 드러난다.

아드보카트 감독은 독일에서 치른 훈련에서 토고의 중앙 수비수 다르 니봄베(RAEC 몽스)가 190cm 장신이라는 점을 고려해 제공권 장악 차원에서 조재진을 원톱으로 내세워 훈련을 시작했다.

신장 185cm의 조재진 역시 헤딩에 일가견이 있는 만큼 측면에서 올라오는 날카로운 크로스를 이용해 첫 골을 터트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조재진이 최전방에서 떨어뜨려준 볼을 2선 공격라인에서 슈팅으로 연결하면 좌우 윙포워드 자원이 박주영과 이천수, 박지성에 게도 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캐나다에서 직접 걸려오는 생생한 영어

###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한국인 영어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교총과 함께하는 **익음**

상담 전화: **1588-8010** [www.watall.com](http://www.watall.com)

특강유형: 한국교총